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 인쇄하기

(기고)가정의 달 5월 부모님 효도선물 '농지연금'

김석구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일시 : 2022-04-29 14:25



김석구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사진제공=독자)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코로나바이러스-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많은 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다.

행사가 많은 5월이다. 기념행사는 축소되고 즐거워야 할 행사는 다소 무겁고 침체된 상황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어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 우울, 불안 증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46.8%로 절반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